

“지자체·정치권 공조 초대형 프로젝트 발굴 재도전해야”

방사광가속기 유치 실패 향후 과제는

평가 항목 불공정성에 발목
'기술어진 운동장' 불구 선전 평가
국토균형발전·호남 낙후 극복을

호남권 첨단미래산업의 도약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며, 1조원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전에 뛰어든 전남이 끝내 분수를 삼켰다. 공모 당시 수도권 접근성, 연관산업 형성 등 불리한 평가 항목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기술어진 운동장'임에도 불구하고, 3점 차로 선전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전남의 '총력전 끝 유치 실패'는 과제도 남겼다. 추후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 공모에 있어 국토균형발전을 위주로 평가지표를 개선해 미래에 대비하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이상의 초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유치해 허탈한 호남 민심을 달래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개교를 앞둔 한전공대를 뒷받침하거나 견인할 수 있는 세계적인 연구개발시설을 신설해 일제강점기부터 계속되고 있는 호남 낙후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020년 최대 역점 사업 '분류'-'평가결과 공개 및 재심사해'-'전남도는 지난 8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가 충북 청주로 낙점되자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입장문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나주는 넓은 평지로 최고의 확장성과 개발 용이성, 단단한 화강암으로 인한 안전성,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편의성과

쾌적성을 갖추어 가속기 구축의 최적지"라며 "대규모 국가 재난에 대비한 위험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 차례 평가항목과 기준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는데, 정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국정목표인 국가균형발전 분야의 비중도 미미한 수준이었고, 수도권 접근성과 현 자원의 활용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모처럼 하나로 뭉친 호남 역량-초대형 프로젝트 발굴해 큰 도전해야=김영록 전남지사는 민선 7기의 역량을 모두 쏟아 1조원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나섰다. 그 과정에서 광주와 전북을 묶어 호남권 유치라는 큰 그림을 그렸고, 호남권 대학·기관·단체·기업이 하나로 뭉쳤으며, 230만 호남인들은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호응했다. 하지만 충북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방사광가속기 유치전에 뛰어들었지만 경북 포항에 고배를 마신 경험을 가졌다. 지난 2017년 일제강점기 방사광가속기 유치 재추진을 위한 검토에 나섰고 지난해 7월에는 이미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한 발 앞서 나갔다.

전남은 국토균형발전, 한전공대와의 시너지, 부지 확장성 및 안정성 등의 장점을 내세우며, 충북 청주를 따라잡는 듯했으나 당초 우려했던 평가항목의 불공정성에 발목이 잡혔다. 김 지사가 "정부에 이번 가속기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모든 문제점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우리나라 가속기 입지의 최고적자인 빛가람혁신도시 나주에 방사광가속기를 추가적으로 하나 더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인구와 경제 수준에서 호남을 크게 앞선 수도권·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위원회가 10일 오전 광주 서구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에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입지 결정과 관련, 세부적인 평가기준과 배점 즉각 공개 및 정부·여당의 나주 구축 이행 등을 촉구하는 '입지결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충청권·영남권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공모 기준 개선을 이끌어내면서 호남민의 여망을 반영한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의 발굴과 유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민선 7기 호남 지자체의 현명한 공조를 통해 이번 실패를 더 크게 만회할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낙연 위원장 민주당 당 대표 출마 여부 관심 고조

이개호·송영길 "출마 않을 것" 전망
송영길·홍영표·우원식 등 당대표 물망
전당대회 대신 '용광로 비대위'도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표 선출을 마친에 따라 당내외의 시선은 이제 당권 경쟁 구도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권 주자 선호도 1위인 이낙연 코로나 19 국난극복위원장의 당권 도전 여부가 주목 받고 있다. 광주·전남 민심도 전남 출신의 이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처럼 당권을 잡고 대선에 나설 것인지 관심이 높다.

일단 이 위원장은 당권 경쟁 이슈와 관련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는 흐름이다. 아직 전당대회까지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소모적 이슈의 중심에 서기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이 위원장이 당권 도전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낙연 위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개호 의원은 최근 광주지역 국회의원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이 6개월 임기에 불과한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 위원장이 전대에

나선다면 과연 경쟁 등으로 정치적 흡입이 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위원장은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을 수습하는데 전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현행 당규상 당권을 잡는다고 해도 내년 3월에는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고 대권 경쟁은 그 이후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당권 도전이라는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고흥 출신으로 당권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송영길 의원도 지난 주말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위원장이 '나는 당권 도전에 관심없으니 열심히 해보라'고 말했다"고 밝히며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으로서 같은 전남 출신인 이 위원장의 불출마는 호남 표심의 분산을 막을 수 있는 최상의 카드다.

당내 일각에서는 비대위 카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는 이 위원장 측에서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코로나19에 따른 국가 비상상황에서 당권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위원장을 비롯해 대권·당권 주자가 모두 모인 '용광로 비대위'를 만들어 위기 극복에 전념한 뒤 내년 3월께 당 대표 경선을 하자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비대위원장은

현재 코로나 19 국난극복위원장인 이 위원장이 추대되거나 최소한 공동위원장 체제가 들어서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 위원장 측 핵심 측근은 최근 당내 또 다른 대권 후보 측을 만나 '용광로 비대위' 구성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 측 핵심 관계자는 10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위원장의 전대 출마 여부는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고 있다"며 "전대 불출마나 비대위 구성론은 아직 성급한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흐름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이 위원장이 지지율 고공행진에 너무 안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감한 도전을 통해 위기의 시대에 걸맞는 리더십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대권 주자로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당내 당권 주자로는 송영길 의원과 홍영표 의원, 우원식 의원이 꼽히고 있으며 이번 총선에 낙선한 김부겸, 김영춘 의원도 유력 주자로 꼽히고 있다. 당에서도 당권을 둘러싼 어수선한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차기 지도부 구성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세계 선도국가' 자리매김

문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진행한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2년 동안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극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포스트코로나'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선도국가'로서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국정 운영의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19차례나 거론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에 관한 메시지에 전체 연설의 절반 이상을 할애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된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질서에 거대한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추격형 국가'에서 탈피해 '선도형 국가'로 탈바꿈할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신산업 뉴딜'과 '고용안정 확대'라는 양대 축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동안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해 온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을 필두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관련 부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

고, 국민취업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도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등을 지적하며 "마지막까지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등 질병관리대응 체계를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해 'K방역'의 세계 선도적 위치를 굳히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역 노력을 남북관계 개선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과 관련해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히는데 이어 질의 응답과정에서 "안보리 제재에도 저축이 안 되고, 남북 국민 모두의 보건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선 추진할 만하다"고 언급, 코로나19의 위기가 오히려 남북협력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7%포인트 오른 71%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5%포인트 내린 21%였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과거 역대 대통령의 취임 3주년 무렵 지지도는 노태우 대통령 12%, 김영삼 대통령 27%, 김대중 대통령 27%, 노무현 대통령 27%, 이명박 대통령 43%, 박근혜 대통령 42%였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인터넷 검색

똑똑한 주부 똑똑하게 라임반찬

삼시세끼 고민, 5분이면 끝!
300여가지 레시피, 매일 100여개 반찬 조리
오전에 주문하면 당일 배송 www.limebanchan.com

장보고, 씻고, 다듬고, 자르고, 끓이고, 무한반복...

봉선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53 ☎1588-6356 수완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200번길 49 ☎062-955-3167 첨단점 광주광역시 월계로 187 ☎062-971-3167